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자

요한복음 4:13-26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치셨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은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예배로 끝납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비로서 서게 된, 한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땀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물을 달라 부탁드립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아시고 자기에게 친밀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장차 올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말 4:6)라고 생각하고는, 한 가지 심령에 갈급한 질문을 하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고, 많은 사연이 있는 부끄러운 여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내 삶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요 4:23-24) 이제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혹은 사마리아인이 그리스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밀감과 확신으로, 영과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릴 때가 임하는데 바로 지금, 그 예배의 때가 열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때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메시야가 아십니까?’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바로 그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26절)고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4장을 계속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들을 의식하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 이제는 성읍으로 돌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보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메시야를 통해 한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낮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도 설 낮이 없었으며,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무엇인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사 59:1-2)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롬3:23) 죄의 의미는 화살을 과녁을 맞혀야 하는데, 여기를 계속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C장조로 음악을 쓰셨는데, 우리는 B단조의 음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께서 대신 지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지불하셔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의 죄가 큼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어느 한 아이가 입양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아들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 영적으로 친밀감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 되었다는 것입니다.(23절)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यो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2-13) 또한,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롬 8:15)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히 10:19-20) 죄의 문제가 해결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되었습니다.

3.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예배의 회복하심과 동시에 해결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갈라진 벽을 허물어뜨리신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에는 갈라져 있던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하게 합니다.(에베소서 2:14-15)

복음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나와 원수와의 관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남한과 북한이, 한국과 일본이, 원수지간 이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세와 1.5세와 2세도 문화, 언어, 배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한국교포들이, 중국교포들이, 러시아 교포들과 미국인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다 해결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민 사회가 힘들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치와 아픔과 어려움과 어둠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갖고 나아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 인생의 승리” 그렇게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에서 승리하여야 하나요?
2.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3.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야 할 우리 사이의 막힌 담은 무엇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수련회 동안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은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